

제주대학교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상담실 운영 실태

이 근 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교실, 제주대학교 의과학연구소

Counselling program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eun-hwa Lee

Departments of Microb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Abstract

To review the activities of counselling program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nd suggest better system for improving student's mental health. The study reviewed data of counselling program from 2005 to 2008. Distribution of student's grade, their reason for counselling, contact methods was reviewed. The number of those who had counselling was most common in the 1st and 2nd grade of medical students. Most common reason for counselling was daily stress and the problems with study methods, concern about future course was followed. Profession who are fully responsible for counselling program and enlarge the budget for the program are needed to accommodate growing needs of counselling and improve mental health status and encourage healthy school life. (J Med Life Sci 2009;6:24-27)

Key Words : Counselling, Medical students, School life

서 론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겪은 후 비로소 대학에 입학하게 됨으로써 시험에 대한 일시적 안도감과 탈진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대학생활의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했을 때 오는 자아위기 의식과 소외감을 극복해야 정상적으로 인격이 성숙되어 독립적인 한 개체로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성인이 되며, 이 시기를 원만히 경과하지 못한 경우 지나친 열등감이나 자존심의 저하로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쉽다. 아직도 시험과 평가에 대한 불안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행동양상, 습관, 성격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한다. 최근 날로 심해지는 학업, 취업경쟁 속에서 학생들 사이에 자살 및 폭력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정신건강 황폐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학생

들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과도한 시험과 경쟁의식에 시달리면서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심한 시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고교시절 우수한 학생에서 의과대학에서 평범한 학생으로 전락하는 스트레스로 자기상에 심한 손상을 입기도 한다¹⁾. 이들은 졸업 후 의사로서 병든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므로 이들의 의사 시절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보내야만 지식과 소명 의식을 갖는 의료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두영²⁾에 따르면, 의대생의 심리갈등의 근원은 첫째, 청소년기 적응문제, 둘째, 장기간 잠재해 있던 정신 내적 갈등의 재연, 셋째, 학업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였으며, 의대생들은 이러한 심리 갈등 속에서도 외부적으로는 과도한 경쟁을 이겨내어야만 하는 힘든 시기를 지내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의과대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건강한 의과대학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2007년 제주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종종 스트레스 관련요인을 1학년 학생, 손상된 자아존중감과 불충분한 휴식시간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도교수제의 개편과 학생상담실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³⁾. 본 연구에서는 이 당시 시행된 상담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ddress for correspondence : Keun-hwa Lee
Department of Microb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66 Jejudaehakno, 690-756, Jeju, Korea
E-mail : yomust7@jejunu.ac.kr

제주대학교 학생상담실 소개

1) 개설 및 운영목적

2005년 4월 의과대학 의학과 내에 학장 직속체제로 개별지도 교수제와 학년 지도교수제로 운영되어 오던 학생지도 체제를 보강하고, 학교와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여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 학업적응을 돕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⁴⁾. 이 당시 담당은 정신의학교실의 교수 1인과 학과장 1인으로 구성되었다. 당시는 학생상담실 전용 공간 없이 담당 교수의 연구실을 상담실로 사용하였다.

2) 상담실의 기능 및 사업

학생의 학업 및 일상생활 과정에서 비롯한 문제의 개인 상담 및 조사, 연구 등을 기본목표로 하여, 학업 및 생활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지도, 진로상담, 학생에 관한 문제의 조사 및 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연구지의 발간, 심리검사 및 도덕성 함양을 위

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타 학생 생활에 관계되는 자료의 수집과 제공 및 연구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정하였다. 상담학생의 발굴은 신입생 스트레스 관련 선별검사, 지도교수 면담 강화 및 의뢰체계 확립, 자발적 상담분위기 조성으로 하였다.

상담실 운영 결과

1. 학생상담부분

1) 학년별 상담 현황

실인원으로는 본과 1학년과 2학년이 22명(2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본과 4학년이 14명(16.9%)으로 나타났다. 연인원으로는 본과 2학년이 57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본과 4학년이 35명(20.5%)으로 많았다. 개인별 상담횟수는 의예과 2학년이 3.7회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본과 2학년(2.6회), 본과 4학년(2.5회) 순이었다(Table 1).

Table 1. Numbers of person and counselling sessions by student's grades.

Year	2005		2006		2007		2008		2005-2008				
	N*	N**	N*	N**	N*	N**	N*	N**	Total N*	Total N**	%	N†	
Grade 1	2	2	2	2	0	0	0	0	4	4.8	4	2.3	1.0
2	2	11	3	13	2	2	0	0	7	8.4	26	15.2	3.7
3	4	5	5	6	7	9	6	9	22	26.5	29	17.0	1.3
4	4	9	3	5	7	25	8	18	22	26.5	57	33.3	2.6
5	0	0	2	4	2	3	2	3	6	7.2	10	5.8	1.7
6	3	12	3	14	0	0	8	9	14	16.9	35	20.5	2.5
Graduate	2	2	2	2	2	3	2	3	8	9.6	10	5.8	1.3
Total	17	41	20	46	20	42	26	42	83	100.0	171	100.0	2.1
Sessions/week	1.3		1.4		1.3		1.3		5.3				

*: Number of counselling person **: Number of counselling session †: Number of counselling sessions per person

2) 상담 연계부분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서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실인원 65명, 연인원 1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로 전화상담이 실인원 2명, 연인원 32명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Table 2).

Table 2. Numbers of counselling methods

Year	2005		2006		2007		2008		2005-2008				
	N*	N**	N*	N**	N*	N**	N*	N**	Total N*	%	Total N**	%	N†
Office	13	36	16	41	18	30	18	25	65	69.9	132	77.2	2.0
Internet	1	1	1	1	0	0	0	0	2	2.2	2	1.2	1.0
Telephone	4	4	4	4	5	12	9	12	22	23.7	32	18.7	1.5
Others							4	5	4	4.3	5	2.9	1.3
Total	18	41	21	46	23	42	31	42	93	100.0	171	100.0	1.8

*: Number of counselling person **: Number of counselling session †: Number of counselling sessions per person

3) 상담 사유

상담사유로는 진단을 내릴만한 정신장애(적용장애, 강박증, 우울증, 순환성 기분, 수면장애, 식이장애, 알코올 의존)이 실인원

14명(학년이 바뀌어 같은 학생이 두명으로 계산되는 것까지 1회로 치면 9명), 상담횟수 47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상스 트레스(실인원 14명, 상담횟수 24회), 학업상담(실인원 18명, 상

담횟수 24회) 순으로 많았다. 실인원으로는 학업상담이 18명(19.8%)로 가장 많았으며 진로상담이 15명(16.5%)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연인원으로는 정신장애가 47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사스트레스와 학업상담이 24회로 많았다. 연인원을 실인

원으로 나눈 상담 사유별, 개인별 상담횟수는 정신장애가 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사 상담이 7.0, 학교생활부분이 2.4로 가장 높았다(Table 3).

Table 3. Numbers of counselling methods

Year	2005		2006		2007		2008		2005-2008				
	N*	N**	N*	N**	N*	N**	N*	N**	Total N*	%	Total N**	%	N†
Mental disorder	5	22	5	21	3	3	1	1	14	15.4	47	27.5	3.4
Relationship with lovers	4	4	4	4	4	6	2	3	14	15.4	17	9.9	1.2
Stress	5	9	5	11	2	2	2	2	14	15.4	24	14.0	1.7
Future course	4	5	4	5	2	3	5	6	15	16.5	19	11.1	1.3
Study problems	1	1	1	1	6	6	10	16	18	19.8	24	14.0	1.3
Economic status			2	2	4	6	1	1	7	7.7	9	5.3	1.3
Family matters					1	13	1	1	2	2.2	14	8.2	7.0
School life					2	5	5	12	7	7.7	17	9.9	2.4
Total	19	41	21	44	24	44	27	42	91	100.0	171	100.0	1.9

*: Number of counselling person **: Number of counselling session †: Number of counselling sessions per person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의 상담사유를 학년별로 나누어본 결과 본과 1학년은 학업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본과 2학년의 경우 학교생활에 관한 것이 26.3%로 가장 높았다. 본

과 4학년의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상담이 31.4%로 가장 높았다(Table 4).

Table 4. Reasons for counselling by grades

Reasons	Grades														Total	%
	1	%	2	%	3	%	4	%	5	%	6	%	7	%		
Mental disorder	2	50.0	18	69.2	5	17.2	10	17.5	5	50.0	17	48.6	0	0.0	57	33.3
Relationship with lovers	2	50.0	2	7.7	4	13.8	6	10.5	3	30.0	0	0.0	0	0.0	17	9.9
Stress	0	0.0	4	15.4	4	13.8	1	1.8	0	0.0	6	17.1	0	0.0	15	8.8
Future course	0	0.0	0	0.0	0	0.0	1	1.8	0	0.0	11	31.4	7	70.0	19	11.1
Study problems	0	0.0	0	0.0	13	44.8	9	15.8	0	0.0	0	0.0	3	30.0	25	14.6
Economic status	0	0.0	2	7.7	1	3.4	2	3.5	2	20.0	0	0.0	0	0.0	7	4.1
Family matters	0	0.0	0	0.0	0	0.0	13	22.8	0	0.0	1	2.9	0	0.0	14	8.2
School life	0	0.0	0	0.0	2	6.9	15	26.3	0	0.0	0	0.0	0	0.0	17	9.9

2. 조사 및 연구 부분

상담실의 조사 및 연구부분 기능은 먼저 학생 생활에 관계되는 자료의 수집과 제공 및 연구에 관한 것인데, 2008년, 2009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이 들어오면서 건강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추후 관리의 현재까지는 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는 학생지도에 관한 연구지의 발간이 그 기능으로 기술이 되어 있

나, 학생지도에 관한 연구지는 발간되지 못하였으며, 다만 의과대학 인정평가 대비를 위해, 학생상담 지도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고 보충할 것을 제시한 정도이다⁵⁾. 상담실의 기능으로는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및 도덕성 함양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각 학생들에게 입학 시 실시하고 있는 건강실태조사에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 발

굴을 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며,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3. 상담학생 발굴 부분

상담실의 기능에는 상담학생 발굴 방안으로 신입생 스트레스 관련 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이 사업은 2008년, 2009년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시행되고 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교수 선정에 참조를 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지도교수 면담 강화 및 의뢰체계 확립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으나, 지도교수 연계는 거의 없었다.

고찰

학년별 상담 현황 결과, 실제 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과 1학년과 2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별 상담횟수(실인원 대비 연인원의 비)가 본과 1학년의 경우 1.3, 본과 2학년의 경우 2.6으로 나타났다. 본과 1학년의 경우 생각보다는 상담횟수가 적었는데, 이 시기의 학생들은 상담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의예과 2학년의 경우 3.7회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의예과 2학년에 다니던 학생이 심각한 정신과정 장애로 인해 아주 많은 횟수의 상담을 시행한 결과로 전체 결과에 포함시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학생의 경우 2008년 본과 2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았으므로 상담 사유의 정신장애는 전체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겠다.

학년별 상담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본과 1학년의 경우 학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시기의 학생들이 학업이외에는 거의 생각을 하지 못하며, 전체 기간을 학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창인 등³⁾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과 2학년의 경우는 가정이나 학교생활을 상담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어느 정도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기타 사건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 본과 4학년과 졸업생의 경우 역시 진로 문제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이 시기의 학생들이 향후 본인의 살아갈 바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당연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전체 학년을 통틀어봤을 때에도 학업문제가 가장 큰 고민으로 나타나 의과대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상담 형식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화로 약속을 하고 상담실에서 만나는 방법을 취했다. 이 시기의 상담실은 한 교수의 개인 연구실을 상담실로 하여 학생들의 접근도가 쉽지 않았으며, 연구실에 다른 연구원들이 있어서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 생각 외로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홍보가 부족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생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학교이외의 장소에서 보기를 원한 경우도 5회 정도 있었다. 어쨌든 학생상담에서는 학생에 대한 기밀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독립된 상담실의 존재가 언제나 필요하다고 하겠다.

상담실 개소시의 상담실 기능 중 연구와 조사 역할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이다. 현재까지는 입학생에 대한 건강실태조사와 의과대학 인정평가를 대비한 예비 연구 정도의 시행이며, 그 연구들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시행하기에는 예산적으로나 인력적인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상담 학생 발굴의 경우 입학 시 기초조사에 의한 것 이외에는 기초자료가 없으므로 지도교수의 역할이 현 상담 체제에서는 유일한 연계방안인데 본 연구의 결과 지도교수를 통한 연계는 거의 없었던 실정이다. 현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상담실 소개와 학생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정도이다. 따라서 상담학생 의뢰에 대해서 각 지도교수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상담학생이 발굴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학생상담을 같이 담당하는 상담실 담당교수 1인이 연간 주당 1.3회-1.4회를 면담하는 것은 매우 힘든 점이 있으므로 상담 전임교수가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늘어나는 학생 상담 요구를 수용하고 필요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담실에서 부가적으로 상담 전임교수를 채용하고 예산의 확대도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1) Park JY, Park HJ, Han SS. Some Psychiatric findings of dropout students in medical college. J Pusan medical college 1971;11: 227-32.
- 2) Cho DY. Imsang haengdong gwahak, Seoul: Ilchokak, 1985:51-5.
- 3) 이창인, 홍성철, 김현주, 김문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중증 스트레스 유병률과 관련요인. '한국의학교육' 2007;19:233-47.
- 4)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2007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보고서. 2007.
- 5) 김문두, 이근화, 강기수, 허상택.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분야 제도개선 연구개발 연구보고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2006.